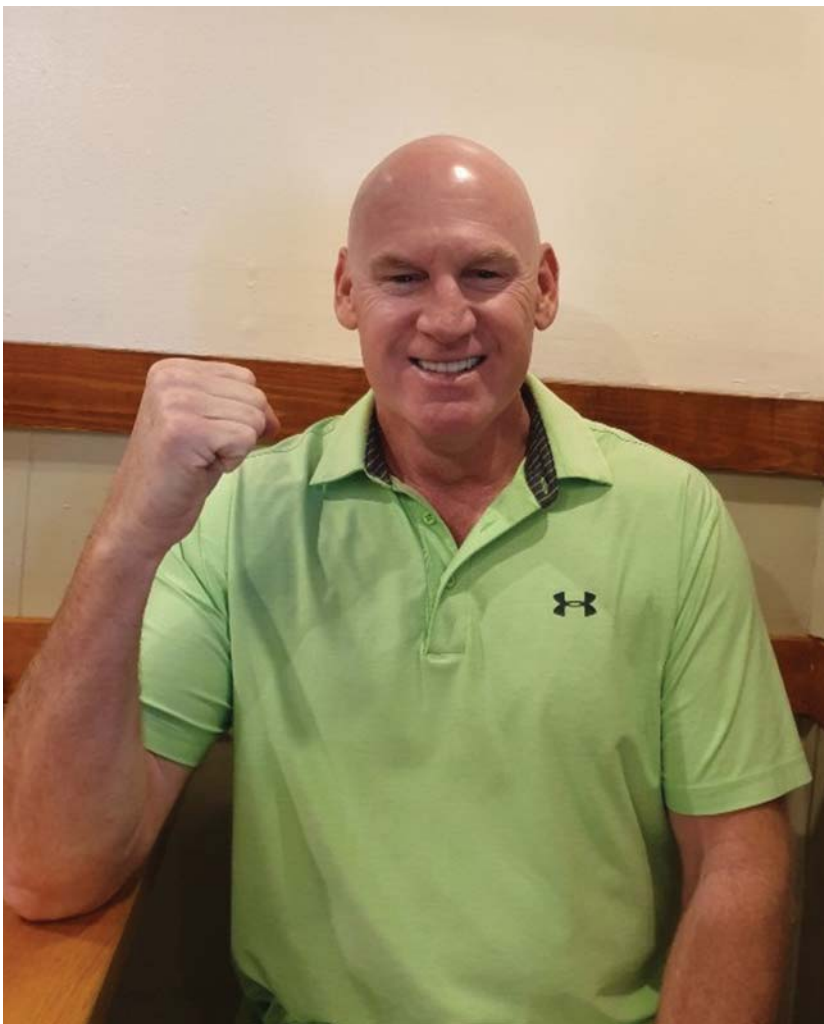


KIA,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감독 선임

김병현과 월드시리즈 정상 올랐던 맷 윌리엄스 감독 선임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 · MLB 올스타 등 스타 플레이어 출신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다. KIA는 15일 과거 메이저리

워싱턴 내셔널스를 이끌었던 맷 윌리엄스(54)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작전 코치를 제9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윌리엄스 신임 감독은 2022년까지 3년간 KIA를 이끌게 됐다.

KIA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포지션 전문성 강화 △프로 선수로서 의식 함양 △팀워크 중시 등 구단의 방향성을 실현할 책임자로, 메이저리그에서 다년간 지도자 생활을 하며 그 역량을 검증 받은 윌리엄스 감독을 선택했다.

윌리엄스 신임 감독은 2010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코치 생활을 시작해, 워싱턴 내셔널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를 거치는 등 메이저리그에서 9년간 지도자 생활을 했다.

이 가운데 2014~2015시즌에는 워싱턴 감독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내셔널리그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할 정도로 지도력을 인정 받았다. 감독으로서 2년간 179승 145패 승률 0.552를 기록했다.

윌리엄스 신임 감독은 "명문 KIA의 감독을 맡게 돼 영광이며, 한국 팬들을 만나는 생각에 설렌다. 또한 열정적인 타이거즈 팬들과 빨리 만나 함께 호흡하고 싶

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수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 발전을 이끌어 내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과 코치는 술선수범해야 하고, 선수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팀에 접목해, KIA가 꾸준한 강팀이 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닦겠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메이저리그에서 17시즌을 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다.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애리조나 등 3팀에서 1866경기에 출장해 37홈런, 1218타점 타율 0.268을 기록했다. 5차레나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뽑혔고, 3루수로서 4차례의 골든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수상했다.

특히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주전 3루수 겸 4번 타자로 활약하며 김병현과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일궈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며, 곧바로 마무리훈련 캠프에 합류해 훈련을 이끈다.

한편 KIA는 선수단의 특징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박희식 감독 대행은 2020시즌 퓨처스 감독으로 선임했다.

뉴스1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북한의 경기를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BBC "남북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대비"

"중계도, 한국 팬도 없어"

29년 만에 평양에서 펼쳐지는 남북 축구 대표팀의 격돌에 영국 'BBC'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대비'라고 표현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5일 오후 5시30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H조 3차전을 치렀다.

남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경기하는 것은 지난 1990년 남북통일 축구 이후 29년 만이다. 그 때문에 한국은 물론, 해외의 관심도 높다.

하지만 중계방송은 물론, 한국 원정 팬도 북한 측에서 허용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경기'로 치뤄졌다.

BBC는 15일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준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두

팀이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 맞붙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면서도 "생방송은 물론, 한국 팬들과 외국 미디어도 전혀 없이 경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한에서 축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로 매우 중요하다. 자국의 자부심과 애국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적인 목적으로 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북의 대표 선수로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과 한광성(21·유벤투스)을 꼽았다.

BBC는 이밖에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과 북한의 외교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가 열린다"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미사일 시험을 해 긴장도 높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 관계가 스포츠 경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뉴스1

류현진, 메이저리그 선수노조 선정 '올해의 재기상' 후보

류현진(32·LA 다저스)이 메이저리그 선수노조가 뽑는 '올해의 재기상'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15일 (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19 메이저리그 '올해의 재기상' 후보를 발표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류현진과 조시 도널드슨(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니 그레이(신시내티 레즈) 등 3명이 후보에 올랐다.

선수노조는 "류현진은 시즌 개막전 선발로 나선 뒤 질주를 시작했다. 그는 다저스 역대 10번째로 긴 무실점 이닝을 기록했고 5월 5



승무패 평균자책점 0.59로 활약하며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투수로 나섰다"며 선정 이유를 밝

혔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부상에 시달리며 단 15경기 등판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는 29경기에 선발로 나서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의 성

적을 남겼다. 평균자책점은 메이저리그 전체 1위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류현진이 수여하는 '올해의 재기상' 수상자는 현역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상금 2만달러(약 2366만원)를 본인이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류현진과 경쟁하는 도널드슨은 2018년 52경기를 뛰는데 그쳤지만 이번 시즌 155경기에서 타율 0.259 37홈런 94타점으로 활약했다. 그레이도 31경기에서 11승8패 평균자책점 2.87 탈삼진 205개를 기록했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텍사스 레인저스 헨리 펜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호르헤 솔레르, 시카고 화이트삭스 루카스 지올리토가 '올해의 재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선수노조가 수여하는 '올해의 재기상' 수상자는 현역 선수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수상자는 상금 2만달러(약 2366만원)를 본인이 선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뉴스1

北, 평양경기 영상 DVD 제공...내일 녹화중계

북한이 15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리는 남북의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3차전 경기 영상을 남측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후 녹화 중계로 경기관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 영상 DVD를 우리 측 대표단 출발 전에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영상 중계는 이를 뒤인

17일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표팀은 다음날인 16일 오후 5시20분쯤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을 경유, 17일 새벽 0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영상)이 곧바로 방송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기술적인 체크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은 제법 지나지만 직접 영상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1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미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